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운동, 교회개척운동, 선교적 교회 운동

금향로가 차기까지

May 2019

관련 기사 : 48 페이지

contents

발행인단신

4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터키는 지금

7 미디어 자유 지수 180개국 중
여전히 157위에 머물고 있는 터키
8 터키 개신교교회 협의회 2018 인권보고서
10 터키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나의 골방

12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중동지역의 오늘

15 시리아 성도의 선포
16 유럽 연합, 이란과 담합
20 이란의 정치 상황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보고 (1)

24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26 다원주의(Pluralism)가 다양화(Pluralities?)된 선교
28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30 제가 왕후의 대접을 받습니다
34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36 우리 모두의 섬김 안에 일어난 성령의 불
39 버가모에서
40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제이넬
41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42 지금은 추수할 때
46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아닐까요?
48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52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

2019년 5월 31일 통권 105호

발행인: 김진영
편집인: 이세웅
편집팀장: 민은경
편집부: 김롯, 이은옥, 장영미
디자인: 민은경
번역: 김지영, 한국번역팀

발행처: Silk Wave Mission

표지설명:
뷰육아다섬 전도사역 (p.48)

실크웨이브 USA
2111 W. Crescent Ave. Unit E, Anaheim, CA 92801
Tel: 714.999.8639
www.SilkWaveMission.com | info@silkwavemission.com

실크웨이브 KOREA
인천 서구 보석로 **18번안길 33 1층**
Tel: 010-2100-4237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용훈목사 (VA 열린문장로교회)
운영이사 김진영선교사 (SWM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SEED 선교회)
강민수목사 (레이뷰언약교회)
권혁천목사 (상항중앙장로교회)
김경진목사 (기쁜우리교회)
김성간선교사 (SWM선교회)
김성민목사
김영하목사 (방주선교교회)
김태형목사 (ANC온누리교회)
김한요목사 (베델교회)
남성수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방상용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손경일목사 (새누리교회)
이강택목사 (뉴잉글랜드은혜장로교회)
이두영목사 (오렌지소망교회)
이상훈목사 (주비전교회)
이진수목사 (뉴비전교회)
장경일목사 (원패밀리교회)
전진석목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정찬수목사 (빛내리교회)
홍원기선교사 (VA 올네이션스교회)
이세웅선교사 (SWM선교회)

국제/미국대표: 김진영 선교사(SWM 선교회, SEED 선교회)
순회선교사: 이문희 목사, 홍원기 목사

후원교회(연합기도운동/교회개척운동)
남가주해오름교회 (송주한목사, Anaheim, CA)
뉴저지 예수마을교회 (이충남목사, Teaneck, NJ)
맥클린한인장로교회 (고현권목사, McLean, VA)
성광장로교회 (이철훈목사, Los Angeles, CA)
엘에이연합기도회 (김수미목사, Los Angeles, CA)
주님세운교회 (박성규목사, Torrance, CA)
템플한인제일침례교회 (김동선목사, Temple, TX)
행복한교회 (전형진 목사, Colorado Springs, CO)

운영이사진:
이 사 장 김승욱 목사 (할렐루야교회)
부이사장 김만섭 목사 (영동교회)
김요셉 선교사 (FOT, ACTS)
박은조 목사 (은혜샘물교회)
운영이사 김현중 목사 (맑은샘광천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광림교회)
서요한 목사 (양주꿈찬교회)
이재진 선교사 (에클레시아선교회)
이찬영 목사 (덕계교회)
조승현 목사 (뉴웨이교회)
조지훈 목사 (기쁨이있는교회)
홍일남 목사 (새생명 교회)

한국대표: 이재진 선교사(SWM 선교회)

후원교회:
필그림교회 (노성용 목사)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영적회복과 부흥을 위한

연합기도제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 지난 4월 킹덤 아웃리치 모든 사역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로 동참하신 중보기도 동역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 홀로 받으소서!

- 킹덤 아웃리치에 이어 SWM 리더십들의 터키, 아르메니아, 이집트의 방문과 네트위킹 사역들을 통하여 터키와 중동지역의 더 큰 영적 부흥과 대 추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하심을 감사합니다.

- 터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아르메니아 교회를 사용하소서! 아르메니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 터키의 영혼들을 진정 용서하게 하시고,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 동원되게 하소서!

- 저희와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할 현지 일꾼들을 쿠르디스탄에 예비해주시고 연결시켜 주소서! 특별히 예지디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울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보내주소서!

-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복음이 온세상 모든민족에게 속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없는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시대 주님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소서!

- 성경에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게 하시고(요엘 2장), 이스마엘 자손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사60장), 이사야 19장의 언약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시122:6)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군대(겔37:1-10)를 속히 일으키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사62:6-70) 우리가 되게 하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주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사 62:6~7)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김진영 선교사
SWM 선교회 국제/미국 대표
pkyoyo@gmail.com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e-금향로를 받으시며 터키와 이슬람권의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 연합기도운동과 교회개척운동을 위해 신실하게 기도하시는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현지교회개척자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교회/성도들과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이 땅과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이슬람권을 향한 관심과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과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강한 진들이 무너지도록 2007년부터 지금까지 '연합기도 운동'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슬람과 무슬림을 향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다양한 집회 (선교 부흥회, 세미나, 킹덤 스쿨 등)를 통하여 이슬람권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도와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슬람의 실체를 알고 대적해야 하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며 방황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곧 무슬림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며 왕의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 이슬람과의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으며 복음을 땅끝까지 그날까지 담대하게 전파해야하는 '교회 개척운동'에 참여해줄 것을 외쳤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난민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모으게 하심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그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선교 단체/교회/성도/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마지막 추수의 때에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모으시는 그분의 섭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어달라고 하나님께 더욱 간청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 9:38)

2.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킹덤 아웃리치 사역이 4월22일부터 5월1일까지 미국과 한국에서 오신 148명의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아웃리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13개 팀으로 나눠져 터키,

이집트, 쿠르디스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현지 교회 개척자들과 동역을 하며 복음 전파 및 교회 개척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터키 교회, 아프간/이란/이라크/시리아 난민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38 CP(Church Planters)들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와 재정 후원뿐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13개의 팀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의 보고와 간증을 모두 다 세세히 적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IS에 의해 가장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쿠르디스탄 23개 예지디 캠프(약 60만 명) 가운데 한 캠프를 연합 의료-치과 팀이 방문하여 예지디 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 복음을 전할 놀라운 기회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시행했던 선교의 방법과 전략에 머물고 있으면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적으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지 전도자들과 교회 개척자들을 세우고 선교사/교회들이 연합하여 교회 개척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특히 터키에 와 있는 난민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터키에 와 있는 450만 명의 아프간/이란/이라크/시리아 난민들은 UN 난민 관할에 있지 않고 터키 이민국으로 옮겨지고 터키 정부는 난민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것

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제3국(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으로 가는 길은 거의 막혔고 이 땅의 여행자(tourist) 비자를 바꾸어 매년 거주 허가를 받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수많은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황금의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추수 때에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3. 현지 교회 개척자(Church Planter, 약칭 CP)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5월 6일부터 9일 까지 이스탄불에서 터키어/아랍어권 CP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CP 수양회를 통해 미국 한국의 목회자들로부터 교회 개척자들에게 필요한 실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해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강사로 오신 홍원기 목사님(올네이션스 원로목사 및 순회 선교사)과 방상용 목사님(세리토스 선교교회)께서 목회자의 영성과 교회 자립을 위한 실제적인 말씀을 통해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란 난민들은 이동의 제한 때문에 저희는 2팀으로 나누어 지역의 이란 난민 CP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동역이 있었기에 이번 킹덤 아웃리치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와 헌신 가운데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웃리치 사역은 마쳤지만 우리의 기도와 동역은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미디어 자유 지수 180개국 중 여전히 157위에 머물고 있는 터키

글: TM
번역: 한국번역팀

터키는 언론인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8년 국경 없는 기자회의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터키는 180개국 중 157위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기자 보호 위원회(CTJ)에 따르면 터키는 지난 3년 동안 언론인 수감자가 가장 많았으며 2016년 쿠데타 실패 후 200여 명의 기자, 언론인 및 칼럼니스트를 수감했다.
"수십 개의 언론 매체를 없애고 친정부 기업이 터키 최대 미디어 그룹을 인수한 후, 정부는 언론에 대한 감시의 끈을 더욱 조이고 있다." 라고 RSF 보고서는 전했다.
2018년 초, 친정부 데미로렌 가족이 도간 미디어 그룹을 인수했다. 이에 따라 터키 미디어 중 거의 95%를 에르도안 대통령이 관리하는 친정부 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터키는 전문 언론인을 가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교도관입니다. 재판이 새로운 규범이 되기까지 1년 이상 감옥에 갇히고, 장기간 징역형은 일반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사면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웹 사이트와 온라인 소셜 미디어에 대한 검열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당국은 현재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4/18/turkey-remains-157th-out-of-180-countries-in-media-freedom-index-rsf/〉

터키 개신교교회 협의회 2018 인권보고서

글: 바바라 G. 베이커
(월드 워치 모니터)

말라티아 구원교회는 2017년 11월 24일, 교회 창을 깨뜨린 벽돌 던진 이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진: 월드워치모니터)

터키의 개신교 목사 앤드류 브론슨 형사 사건은 터키의 작은 개신교 공동체에 대한 터키 국민들의 혐오 발언을 촉발시켰고, 지난 주 교회 지도자들 모임에서는 이것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불안의 징조'라고 규정하였다.

터키 개신교교회 협의회의 2018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브론슨의 체포와 징역 2년 동안의 재판과정을 통해 터키의 지역, 국가, 사회 매체에서 개신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혐오범죄 공격을 받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증거 제시없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테러 조직과 연결하는 반복적인 언론 관행에 대해 150명의 개신교 신자들이"큰 슬픔과 우려로" 미국 목사의 사건을 면밀히 지켜봤다고 말했다. 대신 그는 "브론슨에 대한 비밀 허위 증인의 혐의는 '진짜인 것처럼 보도됐다'며 피고의 교회와 개인에 대한 헌법적 답변이나 수정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록 정부가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제정했지만, 브론슨 사건을 크게 보도하는 동안 터키 언론은 이름, 개인 세부사항, 사진, 그리고 특정 교회 활동을 부정적인 맥락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하면서, 직접 뉴스 보도에서 개신교 교회와 그 신도들을 겨냥했다고 이 보고서

는 말했다.
한 개신교 교인이 동부 도시인 반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한 후 테러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국가 신문에 의해 고발된 한 개신교 교우의 이름과 회사가 공개되면서 그의 사업 계약이 많이 취소되었다.
디야르바크르, 마르딘, 이즈미르, 마니사의 개신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와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론슨 사건과 관련된 "불온한 선전"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도했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하지만 지역 당국은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거부했거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

개신교교회 협의회는 2007년 세 명의 기독교인을 고문하고 살해하기 직전인 12년 전, 기독교 교회와 활동에 대한 터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최근 종교 혐오 발언의 급증에 대해 특히 "심각한 우려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2007년 4월 18일 터키 남동부의 말라티아에서 두 명의 터키 시민과 한 명의 독일인이 5명의 젊은 터키인들에 의해 칼에 찔려 사망했었다.
2018년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터키 개신교계가 직면했던 많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되풀이해서 열거했다. 그 문제들은 오랫동안 인정된 예배 장소의 설립의 어려움, 신학교나 비 이슬람교 신앙을 위한 공식적인 종교 교육을 금지하는 법적 제한, 그리고 종교 신도로서 공식적인 신분을 얻기 위한 법적 경로의 부재를 포함한다.

터키 정부는 지난 해에도 정부나 공식 기관에 의해 조직된 종교 단체들의 모임에 개신교 공동체나 교회 대표들을 초대하지 않고 있다. 개신교 공동체 내의 지역 교회들은 터키의 정교회와 다른 고대 기독교 전통과 같은 계층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9년 결성된 개신교교회 협의회를 종교단체의 대표적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스탄불, 이즈미르, 메르신 등에 거주하는 수많은 개신교 외국인 교회 성도들이 2018년에 터키에서 추방당하거나 재입국 허가를 거부당한 뒤 열흘 이내에 터키를 떠나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면을 보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 한 해 동안 한 개신교 교회가 종교 재단을 구성하도록 승인되었다. 다른 개신교 교회의 설립 신청은 현재 보류 중이다.

현재 개신교계는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등에 주로 집중된 150여 개 교회로 구성돼 있다. 단지 10개의 모임만이 공식적인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데, 대부분은 역사적인 건물들이다. 67개의 나머지 모임들은 합법적인 모임 장소로 지정된 시설들을 임대하거나 구입한다. 대표 지부가 5개인 총 6개의 개신교 재단이 결성되어 등록되었다. 25여 개의 가정 모임 등 나머지 예배 모임은 법적 실체가 없는 현실이다.

터키는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 TM
번역: 한국 번역팀

AFP 사진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외무부 장관은 터키는 지난해 재도입된 이란 석유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이 설치한 인스텍 시스템과 같은 새로운 무역 메커니즘을 확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이란과 6개 세계 강대국 간의 핵 협정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중동 지역의 무장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로 한 데 이은 것입니다.

차우쇼을루 장관은 제재안에 반대한다는 터키의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앙카라와 이웃 국가인 이란은 양국 간 교역량을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00억 달러로 늘리기 위해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우쇼을루 장관은 이란 외무 장관인 자바드 자리프와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기존의 메커니즘과 더불어 어떻게 인스텍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을 확립할 수 있는지 양국과 무역 앞에 놓인 장애물들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평가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의 연대와 결단력"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과의 비달러 거래를 위한 새로운 통로를 열어 제재 조치를 피했다고 무역 교환 지원기구(INSTEX)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은 이란이 핵 개발 계획을 억제하는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2015년 협정을 폐기하려는 트럼프의 움직임에 반대했습니다.
이란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경제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 협상에서 손을 떼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유럽은 이란이 이 협정을 준수하는 한 기업들이 이란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우쇼을루 장관은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터키는 국제 무역에서 국가 통화를 사용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터키와 이란 중앙은행들은 과거 결제 때 유로화를 사용한 뒤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란에 제재를 가한 뒤 미국은 이란 석유 구매를 줄인 터키를 포함한 8개국에 면제를 허가했고, 6개월 동안 제재를 받지 않고도 계속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브라힘 칼른 터키 대통령 대변인은 20일 화요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터키는 미국이 앙카라의 면제를 연장할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출처: https://www.turkishminute.com/2019/04/17/turkey-seeking-new-trade-mechanisms-with-iran-to-avoid-us-sanctions/〉

제대로 미쳐야 합니다

글 : 강안나 사역자 (이스탄불, 터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고후 5:13,14 쉬운 성경)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언가에 미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구에, 게임에, 연예인에, 음악에, 그림에, 쇼핑에, 음식에, 교육에..... 하나님께 미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언가에 미쳐서 삽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알코올, 약물, 일 등에 미쳐 중독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하게 되어 패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것에 미쳐본 사람은 미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알 것입니다. 하나에 미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잠도 뒤로하고, 배고픈 것도 잊어버리고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주는 것도 아닌데도 우리는 어떤 하나에 미치면 온통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번 킹덤 아웃리치 동안 한국과 미국 여러 한인교회에서 150여 명의 성도들이 주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치고, 영혼을 섬기는 것에 미쳐서 재정과 개인의 삶과 시간을 드려 이 땅과 이집트와 이라크에서 의료사역, 난민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사역에 헌신해 주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이분들의 삶이 안정이 되어 여유도 가지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만 할텐데, 안전하고 편안한 지대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자 결단하여 선교지에 와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보면서 '참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주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터키에 밤늦게 도착하여 예배드리고 시차 적응도 없이 3, 4시간 자고, 그다음 날 이른 아침 큰 섬(뷰육아다 섬)에 가서 종일토록 서서 복음을 나누고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날 또 비행기를 타고 각 지방으로 흩어져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난민들과 현지인들 집을 심방하며 사랑으로 위로하고 음식을 사다 주고 기도해주었습니다.
의료팀은 이라크에서 텐트를 치고 땡볕에서 쉼도 없이 종일토록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섬겼습니다. 씻지 않아 냄새나고 갈아입을 옷이 없어 더러운 채로 마구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외면치 않고 안아주고 키스해주며 섬겨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한 가정 만나기 위해 멀고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서 안아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미치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요?
이분들과 함께 사역을 해나갈 때, 고후 5장 13,14절 말씀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마음이 떠올랐습니다.

주께 미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미치게 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 사랑병에 걸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 중독이 될 것이며
주께 미쳐서 살게 하는 강력한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불같은 사랑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불꽃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마다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던 주님의 불같은 사랑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이 터져 나온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증가되고 증가됨으로 결국에는 그 사랑에 사로잡히고, 주님이 자신 전부를 주신 그 사랑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자는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물고, 주님이 자신 전부를 드린 그 부르심에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미치는 것인데, 주님과 사랑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주님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에 미친 자들은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며 느끼시는지,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목자 되신 주님이 어디에서 양을 먹이시는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알게 되어 주님과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저의 마음의 고백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어느 날,
사역할 만큼 했다는 이유로,
갱년기라는 이유로,
나이가 들어서 대접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님께 인색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겉사람이 후패하고 육체가 기력이 없어
주님께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
나를 더 소중히 여김으로 인해 나를 챙기느라
주님께 인색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내 갈망의 불이 희미해져
주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무뎌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까 봐
그래서 주님께 인색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 날에, 그곳에 가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텐데 가끔씩 오늘은 쉬자.
이제 그만 달리자. 누리자. 편하게 살자.
이렇게 달려왔으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며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 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시는데 내 육이 편하게 살고 싶어 아우성치는 소리가 나를 엄습해 덮쳐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때론 깊은 밤,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홀로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몸서리치게 외로워지고,
온세상에 나혼자 존재하는 듯 느껴져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내 영이 방황할 때 두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의무가 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사람들과 더 함께 하고 싶어 하고,
하루에 얼마만큼만
주님과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은 그냥 나를 실현하기 위해 살며,
주님과 독대하며 살아있는 말씀 앞에 씨름하기보다는 유명한 설교가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호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지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머무는 것을
선호함으로 그 삶이 익숙해지고,
나에게 주어진 편안함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속삭이는
나의 자아와 타협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나와 나의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건만
우리만의 왕국을 세우고자 움켜쥐며
그 안에 안주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때론 두렵습니다.
나의 건강과 행복, 나의 안전이 너무나
중요하여 보이는 현실이 너무 실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살아야 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을까 봐 두렵고,
지금 추수의 하나님께서
추수의 들판에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 남의 일이 되고,
무관심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소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깨워주소서.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도록 깨워주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미쳐도 주를 위해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해 미치게 하소서.
아멘!

시리아 성도의 선포:
오늘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글: 린디 로우린
(중동, 박해의 이야기)
번역: 한국 번역팀

3년 전, 시리아의 교회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잔인한 내전과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침략은 기독교의 존재를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시리아에 있는 교회를 부활시키고 계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음을 표현하는 것(1800만 명 중 814,000명)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발각된다면, 가족, 친구, 직장, 심지어 삶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알레포 시에 있는 연합 교회에서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선포할 때, 우리는 듣고 그들과 함께 부활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출처: https://www.opendoorsusa.org/christian-persecution/stories/syrian-believers-proclaim-christ-the-lord-is-risen-today/〉

유럽 연합, 이란과 담합

글: 주디스 버그만
번역: 한국 번역팀

유럽 연합은 이란이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이스라엘이 압수한 문서를 인용해 핵합의 이행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윈 맥나미 사진 / 게티 이미지)〉

지난 1월 31일,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인스텍스 (Instrument in Support of Trade Exchanges)로 명명된 새로운 거래 제도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2018년 5월 '이란 핵 합의' 로도 알려진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를 파기하고 같은 해 11월 대 이란 제재를 다시 강행함에 따라, 3국이 기존의 핵합의를 보존하기 위해 창안했다. 인스텍스의 주 설립 목적은 유럽과 차후 제3국들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피해 합법적으로 이란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스텍스는 이란과의 합법적 무역을 지지할 것이며 초기엔 약품, 의료 기기, 식품과 같이 이란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품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영국, 독일, 프랑스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서에서 밝혔다 . 장기적으로 인스텍스는 이란과의 무역을 원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개방될 것이라고 성명은 또한 전했다. 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대표는 "인스텍스가 핵합의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과 유럽이 불법이며 발효도 되지 않은 핵합의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울 준비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란의 합의 이행과 함께 핵 관련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본 협약의 핵심이므로, 우리는 제재 해제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최근 발언했다. 또한 "우리의 공동 안보는 핵 확산 금지 및 핵 군축을 위한 견고한 다자간 협력을 필요로 하기에, 유럽 연합은 이란과의 핵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란이 핵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 장관은 이스라엘이 압수한 문서를 인용해 핵합의 이행이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란 전문가 마지드 라피자데 박사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기구의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사무총장이 최근 이란 국영 방송인 채널 2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작한 반 푼짜리 "핵합의"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전혀 방해하지 못했다고 발언했다. 라피자데 박사는 이란의 핵 개발 진전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방식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독일, 영국과 같은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계속해서 이란이 합의문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슬림과 거래를 하고 싶어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8년 10월까지 독일의 대 이란 수출은 이전보다 4% 늘어 24억 유로에 육박했으며, 2019년 월평균 수출량은 2억~2억 5천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이란으로 수출된 독일 상품은 전년도 대비 85% 급증했으며 2009년 이래 가장 높은 월 판매량인 4억여 유로 (4억 5,500만 달러)에 달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한 독일의 한 정보국 보고서는 "이란이 로켓과 미사일 추진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 확보를 위해 변함없이 야심찬 계획을 추구하고 있고" 그 활동의 상당 부분이 독일 영토 내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폭스 뉴스가 2017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란은 라인 강 북부의 베스트팔렌에서 핵 확산 프로그램을 위해 "32번에 걸쳐 조달을 시도했다."

폭스 뉴스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확보를 위한 이란의 시도를 감추고 있으며 그러한 통계를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핵무기 확보를 위한 이란의 노력조차 이란과의 거래를 철회할 이유가 안된다면 이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인권 유린은 어떨까. 유럽은 스스로 인권에 대한 자부심에 차 있지 않은가. 유럽 연합에 따르면 "유럽 연합은 인권 증진 및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신념으로 삼으며,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 인권을 그 중심에 놓는다. 유럽 연합 정책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 여성, 아동, 소수 민족, 난민의 권리 증진
- 사형제도, 고문, 인신매매, 차별 철폐
- 민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옹호
- 파트너 국가, 국제기구 및 지역 단체, 모든 계층의 사회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인권 보호
- 비 유럽 연합 회원국과 무역 또는 협력 시 모든 관련 협약에 인권 조항 포함."

하지만 이란과의 거래에선, 이 고귀한 원칙들이 해당사항이 없는듯 하다. 국제 앰네스티의 2017-2018 년 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종교적 신념의 자유를 강력하게 탄압할 뿐 아니라 수많은 반대 인사들을 감금했다. 재판은 조작되고, 고문과 부당 대우가 만연해 있다. 태형과 절단형 등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자행되었다. 당국은 광범위한 차별과 성별, 정치적 신념, 종교적 신념, 인종, 장애, 성적 지향,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폭력을 묵인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형 당했고 일부는 심지어 공개처형 당했다. 수천 명이 아직 사형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 중에는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들도 있다."

여성들은 특히 학대에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
"여성은 이혼, 취업, 평등한 상속 및 정치 활동, 민법 및 형법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법적으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 - 당국은 성에 기반한 폭력을 기소하지 않는다 ... 여성의 합법적 결혼 연령은 13세이며 이마저도 부친이나 조부가 법원에 요청하면 더 어린 나이에 결혼할 수 있다. 대통령 후보로 등록한 여성 137명은 혁명수호위원회에 의해 모두 실격되었다. 로하니 대통령은 시민 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성 장관을 한 명도 뽑지 않았으며, 히잡 강제착용법은 경찰과 군 병력으로 하여금 여성들이 스카프 아래로 머리카락을 보이거나 짙은 화장을 하거나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것을 제재하고 구금할 수 있도록 했다... "

그러나 모게리니 대표와 조력자들에게 이런 사실들은 전혀 중요치 않은 듯하다.
그렇다면 이란이 세계 최대의 테러 지원국이라는 사실은 어떨까. 네덜란드 정부에 의하면 이란은 2015년 이후에만 유럽에서 4 차례의 테러 공격을 모의했다. 네덜란드 당국에 의하면 이란은 네덜란드에서 두 건의 암살을 행했으며 덴마크와 프랑스에서 각각 한 건의 공격을 계획했다. 프랑스에서 모의한 공격은 반체제 시위를 대상으로 한 테러였다.

물론 유럽 연합은 이란의 테러 행위에 관심을 갖고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란 정보국과 이란 국민 두 명에게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이란이 테러리스트를 후원한다고 해서 유럽 연합과의 거래에 지장이 있었을까? 이는 말도 안되는 소리다.
그 아무리 잔인한 인권 유린도 유럽 연합과 이란의 협력을 저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자국민을 목표로 한 테러도, 이스라엘, 미국, 나아가 모든 서방 국가를 타깃 삼는 핵 개발을 위한 거짓말도 효과가 없는 듯하다. 유럽은 자신의 파멸을 두 눈 뜬 채 마주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출처: https://www.gatestoneinstitute.org/14006/eu-collusion-iran〉

주디스 버그만은 컬럼니스트, 변호사, 정치 애널리스트이자 게이트스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이다.

이란의 정치 상황

이란혁명 40년 그 때와 지금 시리즈 2

글: 호르무즈 샤리아트
(이란 얼라이브 선교회, 호르무즈 샤리아트 블로그)
번역: 김지영 (새누리교회)

이번 5월호 '이란의 정치상황'은 지난 4월호의 1장 '40년간의 이슬람 통치가 이란에 가져온 변화'에 이어 연재되는 글입니다.

이란은 이슬람 성직자가 이끄는 세계 유일의 국가이다. 40년 전 2월, 이란의 비이슬람 엘리트들은 샤 모하메드 레자 팔라비("샤")의 서방 왕국을 전복하기 위해 보수 성직자들과 합류했다. 샤의 정권을 축출하자마자 혁명 지도자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호메이니")는 이란을 이슬람 공화국이라고 선언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IRI)은 이슬람과 이슬람법을 개인 생활, 가족 및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적용했다. 이란 사람들은 지난 40년간 이슬람 신정 국가를 경험해 온 것이다.

지금 그들의 생각은?

본 블로그 글 시리즈는 이란의 현재 영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그리고 왜 이란에서 이런 이슬람법 통치가 끝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2장

현재 이란의 정치적 상황

40년의 신정정치를 겪는 동안 국민들의 정치적인 견해와 행동에는 변화가 있었다.

테헤란의 이란 국회 건물

무시된 정부 축하 행사

몇 주 전 이슬람 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정부 후원 집회에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정부는 정부 직원들과 그의 가족들을 거리에 강제 동원했고 그를 찬양 보도하는 친정부 기사가 나갔다. 그러나 올해의 축하 행사는 실패작이었다. 심지어 공무원들과 그의 가족들 또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정부적인 이란 언론은 행사에 관한 생방송 보도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보도 내용은

지난 몇 년간 사용했던 지나간 영상자료들이었다. 이 행사의 보도 내용이 생방송 보도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은 보도과정에서 밝혀질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행사 당일은 화창한 날이었는데 방송에서 내보낸 영상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테헤란에서도 집회가 활발했던 것처럼 보여주었지만 작년 이 시기에 테헤란의 나무는 초록색이었고(이른 봄) 올해는 겨울이 더 길었던 탓에 나무에 아직 잎이 없었다.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이와 같은 정부의 시도는 SNS상에 퍼졌고 정부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비 이슬람 정부를 향한 염원

대다수의 이란인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원한다. 이란인들은 미국과 미국이 하는 모든 것에 경의를 보이고 있다. 이란인들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있고 국민투표가 행해졌더라면 압도적인 다수는 미국 정치 스타일인 비 이슬람 정부에 표를 주었을 것이다.

안전한 소통의 돌파구

사기 투표를 반대하는 집회인 2009년의 더 그린 운동은 트위터를 통해 형성되었다. 정부에서 트위터 자체를 폐쇄함으로 즉시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수년 간 전화와 인터넷은 필터링 및 통제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또한 차단되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텔레그램, 왓츠앱, 바이버등과 같은 무료 SNS 메신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안전한 메신저들은 사람들 간의 정보 및 소통이 확산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국민들은 정부가 후원하는 채널과 언론을 무시하고 불신하며 위성방송과 인터넷(VPN 사용),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정보만을 신뢰한다. 국민들은 위성방송과 인터넷(VPN 사용),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는 정보만을 신뢰한다.

테러리즘 후원 반대

이란은 전세계에서 최고 테러 후원국가로 시리아, 레바논, 예멘, 이라크에게는 불안정한 세력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란 국민들은 정부가 그런 세력에 관여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심하게 반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민들보다 그 세력들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전세계에 걸쳐 다른 세력들에게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핵폭탄 반대

핵폭탄과 순항 미사일의 개발은 항상 IRI의 최우선 과제였다. 그들은 재정적인 어려움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무기를 가지는 것 자체가 외부로부터 국가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한 핵폭탄을 사용해 다른 국가들을 핵 공격으로 위협하려고 한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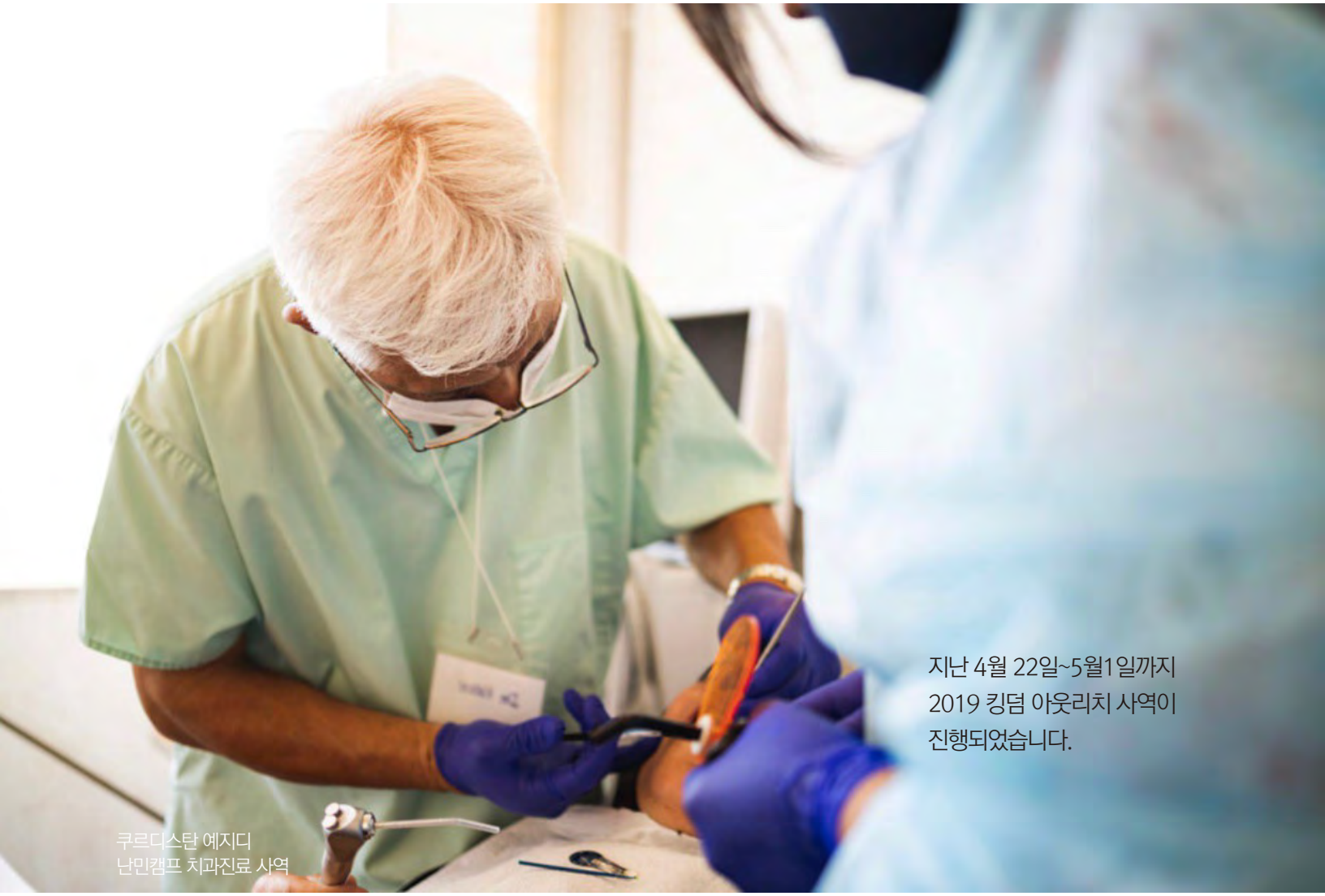
지만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핵폭탄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국가로서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것을 오용할 것 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무책임한 아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미국에 대한 적대감 반대

이란 국민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 협상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는 한가지는 “미국인은 매우 순진하다” 라는 것이다. 그 협상이 체결되고 이란 의회는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얻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였다. 협상의 핵심은 이란이 핵폭탄 개발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지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뻐했던 것은 핵 시설의 검사가 너무 많은 제약이 있고 군부대 내 검사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핵 무기 개발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트럼프의 경고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에 따라 2019년 1월 중순부터 국민들에게 미국의 공격이 임박한 것처럼 경고했다. 물론 그들의 이런 과장된 경고는 국민들의 비참한 삶과 실패한 정부 정책, 기울어져 가는 경제로부터 눈을 돌리기 위함이었다.
1979년 혁명 이전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동맹국이었다. 현재 IRI에 따르면 미국은 “큰 사탄”이고 이스라엘은 “작은 사탄”으로 두 나라 모두 핵 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방법으로든 파괴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에 국민들은 오히려 “제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 저 성직자(국가 지도층)들을 없애는 걸 도와주세요”라며 반기고 있다.
국민들은 오히려 “제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 저 성직자(국가 지도층)들을 없애는 걸 도와주세요”라며 반기고 있다.

정치적 변화를 원하는 이란인들

혁명 당시, 사람들이 호메이니를 지지했던 것은 이슬람이 통치함으로서 이란 안에 있던 부패와 이란을 침략하고 있던 서구 사회의 가치들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은 혁명 전보다 더 많은 불의, 도덕적 부패, 사회적 분열 등을 목격했다. 지난 40년 간 국민들은 대선을 통한 그들의 노력이 지도층을 변화시킬 것이라 믿었지만 지난 1년 반 동안 정권의 변화만이 진정한 변화일 것이라는 진실을 향해 눈이 열렸다. 정권은 더 이상 중도파와 강경파 대통령을 교대로 번갈아 가며 정치적인 플레이로 국민들을 눈속임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이란인들은 개방적이며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신정 독재 체제에서 비이슬람 민주주의로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



쿠르디스탄 예지디
난민캠프 치과진료 사역

지난 4월 22일~5월1일까지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보고 (1)

2019

킹덤 아웃리치

연합중보기도회 저녁 설교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말씀: 김용훈목사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
본문: 행 1: 3 -11

이번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일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놀랍게 이곳 난민 사역 가운데 나타났는지요? 우리가 직접 보고 들으며 경험한 이 놀라운 간증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웃리치 사역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해보게 되는 것은 아웃리치를 통해 경험한 이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이번 아웃리치 사역에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어야할지를 고민해야합니다. 즉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비출 수 있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해야하며 실천해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2019 킹덤 아웃리치 사역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우리가 창12:2-3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 12:2-3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 구약과 신약에 395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랄프 윈터는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의 뼈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이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목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유일한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8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목적이 선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주신 목적도 선교입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도 열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행 2:1-1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이 흘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을 흘려보

내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행 11:19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즉 열방을 향해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축복을 자신들 안에만 가둬두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보호의 손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반복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목적을 저버리고 교회 내의 성도들을 위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제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어려분을 불러 축복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을 이웃에게 흘러보내야할 것 입니다.

둘째,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행 1:6에 보면,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이까?"라고 주님께 묻는 것을 봅니다. 이 질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터키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선교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선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역의 현장에서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툭툭 치시면서' 새로운 일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의 틀이 깨어지고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가 어떤 한 행사에서만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교가 행사가 아니라 선교가 우리 삶의 DNA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린문장로교회가 인도에서 큰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터키의 난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입장에서 터키의 난민을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터키 난민 사역에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역에 참여하면서 난민 사역이 디아스포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 6:8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처럼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벧전 2:9에 보면 우리가 모두 제사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2년 전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크게 기념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공헌 중 하나가 성직자와 평신도의 벽을 허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기에 기꺼이 이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으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목적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개종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는 그 영혼의 삶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선교사입니다.
부름받은 장소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제사장으로 선교사로
살아가야 할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삶을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다원주의(Pluralism)가 다양화(Pluralities?)된 선교

글: 안바울 사역자 (안디옥 개신교회)

매년 4월이면 뷰육아다 전도사역과 함께 진행되는 SWM 선교회의 아웃리치가 있습니다. 매년 다른 팀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떤 팀과 함께 할까 하는 설레임이 있었는데 2019년에는 LA의 주님의 영광교회와 함께 안디옥 아웃리치 사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라는 교회 이름이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왠지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떠올랐는데 작년에 오셨던 LA 원패밀리교회 장경일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귀에 익었던 것입니다. 이 팀이 오게 된 것도 작년에 원패밀리 팀이 안디옥 아웃리치에 올 때 그 팀원 중 한 분이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이었는데 그것이 연결고리가 되어서 주님이 영광교회팀이 SWM 선교회에 아웃리치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주님의 영광교회팀을 통해서 여러가지를 보고 깨달았지만 제일 가슴에 남은 한가지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다양성(Pluralities)입니다.

이번 주님의 영광교회팀은 선교담당 최형규 목사님과 선교팀장 김제임스 장로님을 중심으로한 12명으로 구성된 팀이었습니다.
이 팀에서 제일 특이한 것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10대 초등학생부터 70대 권사님까지 계신 그룹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모든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실제적으로 안디옥 사역은 사역중심의 아웃리치이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의 팀원들이 어떻게 조화롭게 사역을 할 수가 있을지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역 기간 내내 정말 훌륭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보고 괜한 걱정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특징이 다양함인데, 바로 그런 안디옥의 색깔에 맞는 팀이 바로 주님의 영광교회팀의 색깔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디옥 아웃리치 사역 보고서

각자의 재능에 꼭 맞는 역할을 감당하며 성심껏 현지인들을 섬기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팀에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계속하는 과정이었고 엄마와 함께 하는 네번째 선교라고 하였습니다. 저의 큰 딸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아이들에게도 혹시라도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팀을 담당한 사역자로서 아이의 안전문제와 여러가지가 걱정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만나고 시간을 지내면서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걱정이었는데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이들도 그 아이가 이상한지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아이는 일정 내내 팀 가운데서 큰 축복이었고 행운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말하고 잘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모양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초대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하게 되면서 나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고 협력하면서 더욱 넓어지는 선교의 지경을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작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안디옥교회의 특징을 잊고 있었는데, 이번 주님의 영광 교회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부터 약한 사람까지, 정서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님의 영광교회 안디옥 선교팀을 통해 이런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교의 다양성(Pluralities)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을 말하고
잘하는 사람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모양의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담겨져 있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글: 김에녹 사역자 (이스탄불)

올해의 모든 아웃리치 사역은 뷰육아다의 사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오신 복음의 열정을 가지신 귀한 교회 팀들과 이곳 사역자들이 함께 뷰육아다 섬에 모였습니다.

"뷰육아다" 섬의 조지아 수도원에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터키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소원 (막연한 치유와 회복 그리고 응답의 소망)을 가지고 뷰육아다 섬을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찾아온 터키인들에게 크신 주님의 복음을 나누며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이번 뷰육아다 섬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하면서
터키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과는 또 달랐습니다.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터키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터키가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뷰육아다 섬에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를 하면서 터키의 영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과는 또 달랐습니다.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분을 인정하고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찾아가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터키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터키가 느리지만 조금씩 조금씩 복음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뷰육아다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우리들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본도"(흑해) 지역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들은 연합과 동역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우고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흑해 지역인 삼순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삼순교회는 터키인인 "오르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다음 세대 터키 사역자들인 "텐젤", "오누르" 같은 젊은 사역자들이 잘 준비되고 훈련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삼순교회에는 이라크 사역자인 "아르칸", 이란 사역자인 "샤힌" 등이 동역자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이라크 난민 교회가 삼순교회 건물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시놉, 초롬, 아마시아 같은 흑해 소도시에도 난민과 함께하는 같은 형태의 교회들을 개척하고자 하는 사역자들이 아름다운 동역의 비전을 꿈꾸며 준비해 가고 있었습니다.

터키 땅이 척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곳곳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어 터키 땅에
말씀이 흥왕하여 열매 맺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이번 아웃리치 사역 가운데 감동이 되었던 또 한 가지는 텐젤, 오누르 같은 터키 사역자 뿐만 아니라 3개 혹은 4개 언어가 가능한 난민 다음 세대 아이들, 청소년 그리고 젊은이들이 신앙 안에서 외롭지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루디아" 같은 "나다" 라는 여성 사역자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초롬에 거주하며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아이들 교육 사역과 여성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이라크에서 부유층의 삶을 살았기에 기품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 주위 난민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초롬에 교회가 개척되는 구체적인 과정들을 나누며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 등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시놉은 이란 사역자인 "샤힌"이 사역하는 곳으로 삼순 교회가 샤힌을 통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갑작스럽게 이곳 샤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은 30명 정도가 모였고 분위기는 매우 밝았습니다. 이런 밝은 분위기 속에서 제가 터키어로 복음을 나누고 샤힌이 통역을 했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준비되었던 2명 외에 3명이 더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아마시아, 차이엘리, 트라브존, 리제 등을 다니며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친구들과 가정들을 격려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리제" 지역에서는 단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리디아" 를 만났습니다. 신분증의 터키 이름도 성경 이름인 "리디아"로 바꾸고, 종교란에도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바꾼 싱글 자매입니다. 우리들은 리디아가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리디아 자매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을 리제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며,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터키 땅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을 변화 시켜 주실 소망을 전하는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 자매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사역자였습니다.

이번 흑해 사역을 통해 주님은 부족한 저를 더욱 넓혀 주셨고 주님 나라의 더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사역 내내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경험했습니다. 중동 난민들을 터키 땅까지 흩으시고 믿음 안에서 세워가신 주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 터키 땅을 기경하시고, 터키인들을 시기케 하여 터키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의 경륜을 보았습니다.
예배 및 모임 때마다 적지 않은 유학생들을 만나면서, 터키 대학에 다니는 아들 하람이처럼 터키까지 공부하러 온 많은 제3세계 크리스천 유학생들이 터키 대학 복음화의 자원임도 이번 여행을 통해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터키 땅이 척박하지만 우리 주님은 곳곳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구체적으로 물을 주고 가꾸어 터키 땅에 말씀이 흥왕하여 열매 맺는 그날을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조건 없는 기도와 사랑 그리고 방문해 주신 모든 섬김을 통해, 주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터키 땅에서 볼 수 있게 하실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왕후의 대접을 받습니다

글: 길예평 사역자 (K도시)

오리엔테이션

동역자 가정의 출산휴가와 4월 아웃리치 사역을 앞두고 안식년 중에 현장으로 일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몸살 기운에 무거운 몸이었지만 영으로는 주께서 이번 아웃리치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경쾌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녁식사 후 가진 오리엔테이션과 합심 기도에서 성령님의 '웰컴' 해주시는 음성과 함께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사 62:6~7)들이 모였다"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지난 12년간 SWM 선교회와 함께 쉬지 않고 이 땅의 영적 회복과 돌파를 위해 함께 기도의 손을 모아준 동역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너무나 귀하게 다가왔습니다. 뷰육아다 사역을 시작으로 2019년 아웃리치 모든 일정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그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뷰육아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몸살을 앓았는데 아침에 이상하리만치 몸이 가볍고 상쾌했습니다. 할렐루야! 시작이 좋습니다. 아침식사 때 원패밀리교회팀과 만나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뷰육아다 사역에 대해 잠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패밀리교회팀은 장경일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세 분의 성도님이 참석하셨는데 소수 정예로 멤버 구성이 딱 좋았습니다.

뷰육아다로 떠나는 배 안에서 수리아 안디옥(실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섬을 향해 지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바울의 당시 마음은 어땠을까 묵상했습니다. 그날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저마다 사연을 안고 이리 가파른 산길을 끝없이 올라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려 하셨던 주님의 참 사랑과 생명이 저들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구하며 혹 한 영혼이라도 놓칠 새라 힘을 다해 그들 영혼에 반응하며 들어주고 기도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안아줬습니다.

원패밀리교회팀과 함께 뷰육아다 사역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강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별히 장경일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현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될 때 그

들 안에 강한 떨림과 눈물, 통곡, 심령의 회복이 일어났으며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고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의 문제와 짐을 예수님께 맡기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한 여성은 오열과 함께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주께 반응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성은 내려가던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10분 전에 당신들이 기도해줬는데 지금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기도를 받겠다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경험한 원패밀리 팀은 더욱 힘을 얻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복음 팔지를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이날 우리 원패밀리교회팀은 뷰육아다 사역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실재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회복과 영혼 구원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히 선포되고 부어질 때 가능함을 깨닫고 이 땅을 위해 더욱 힘을 내어 중보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나눈 복음 팔찌와 성경, 전도 책자들이 그냥 휴지통에 버려지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기회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도 우리는 뷰육아다를 다시 오를 것 같습니다.

카라뷕 & 사프란볼루

카라뷕주는 터키 중북부에 위치한 주로, 흑해 지역에 속합니다. 주도는 카라뷕이며 면적은 2,864km^2, 인구는 200,508명이다. 카라뷕 주에 위치한 카라뷕 대학교의 학생 수는 51,188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도시 규모에 비해 공식적인 교회 모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타 지역에서 유학 온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정기적인 모임들이 있었으나 지속적으로 모임이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이란 출신의 M지드 & M로디 부부가 이 지역에서 페르시아권과 터키권의 가정 모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패밀리교회팀에서는 이 지역의 난민과 교회 개척 상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성경적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계속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또한 이곳 공동체를 격려하며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민 가정방문

유엔과 유럽연합이 터키 내 난민 문제에서 발을 빼자 난민 관리에 터키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터키 내 난민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난민들의 지속적인 체류 가능 여부에 변수가 생기면서 난민 가정들마다 긴급히 기도 중인 상황입니다.

[카라뷕 &사프란볼루 가정교회 심방사진]

주께서 친히 세우신 그분의 몸 된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상황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어디 있든지 주의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동역자님들께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카스타모누 팀

'제가 왕후의 대접을 받습니다'

먼 외국에서 온 지체들을 없는 살림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난민 성도 가정의 환대에 권사님 한 분이 그만 울음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섬김을 받는다며 줄줄이 차려져 오는 이란 음식들에 "제가 왕후의 대접을 받습니다"라고 이 집의 엄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울음이 터진 것입니다. 이에 덩달아 이 집의 엄마까지 울음이 터지면서 식사가 중단되고 갑자기 서로를 찾아가 얼싸안고 사랑과 축복을 나누는 친교의 시간이 돼 버렸습니다.

이틀간 M지드 & M로디 가정, 그리고 난민 두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기독교 난민으로 이방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도 웃음과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긴급하고 아픈 기도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것, 무엇보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절망하며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이것을 지켜보며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의 무거운 고백을 들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아들을 둔 부모로서 가슴에 큰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심을 믿고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며 절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 드렸습니다.

M지드 & M로디 부부는 주일 아침 11시~오후 3시까지 터키권 예배를 인도하고 곧이어 장소를 이동해 페르시아권 예배와 모임을 오후 4시부터 저녁 11-12시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권 모임은 한번 모이면 끝이 날 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함께 주를 섬기며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바라건대 카라뷕에 세워진 이 교회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여 그분의 제자를 세워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카스타모누

카스타모누는 터키 북부에 위치한 도시로,면적은 1,834km^2, 높이는 904m, 인구는 115,000명입니다. 카스타모누 주에 위치한 카스타모두 대학교의 학생 수는 약 40,000 명에 달합니다. 약 5년 전 길예평 사역자 가정에 의해 교회가 개척되었고 그 후 장과장 가정이 합류하여 현재까지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일찍 돌아가야 하는 원패밀리 교회팀의 일정상 본인(길예평)이 사역하는 카스타모누에서는 단 하루의 시간 밖에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카스타모누 교회 & 난민 성도가정 심방사진]

카스타모누 국제교회방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 난민을 통한 카스타모누 국제교회 개척 스토리와 현지 영적 상황, 난민 가정교회의 상황들을 나누며 이 땅을 회복하고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난민 가정방문

2년 전 예수님을 영접해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H형제와 B자매(이란 & 이라크)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예수 믿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했던 B자매의 그간의 기도응답 간증은 마치 죠지 뮬러를 떠올리기에 할 정도로 우리 팀 전체를 놀라게 하고 모두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동역의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요청드립니다

카스타모누에서는 모 교회 사역과 난민가정교회 네트워크 사역, 아프리카 유학생 사역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카라뷕 & 사프란볼루 지역에 사역하고 있는 M지드 & M로디 가정의 사역도 코디로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무릎으로 중보해주시고 동역해주시는 교회와 동역자 분들이 없이 결코 저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계속해서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2019년 아웃리치를 통해 이 땅에 또 한번의 영적 기류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바다를 지나온 여러 동역자님들의 수고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있는 저희들 또한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를 얻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동역의 가치가, 함께라는 가치가 지속되고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아웃리치 사역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섬겨주신 장경일 목사님과 원패밀리교회팀 모든 지체분들께, 그리고 미국과 한국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동역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할렐루야!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이신애 집사 (열린문장로교회)

뒷줄 왼쪽: 이신애 집사

너의 눈은 그 영광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 하겠고 (사 33:17)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것이라 (사 43:18,19)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위하여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작년에 이은 두 번째 터키 여정은 우샥과 데니즐리의 이란과 아프간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맛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엔이 터키에 묶인 난민들에게서 손을 떼면서 그나마 붙들던 자유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는 좌절과 함께 고인 물과 같이 멈추어 버린 그들의 미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과 질문은 누구도 쉽게 답을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샥 이란인 교회의 바흐람, 순여 목사님 부부와 데니즐리 올네이션스 이란인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이 소명을 품고 섬기고 있는 아프간 난민들을 만나면서 지난 몇 개월간 이곳에 영어 스쿨을 돕기 위해 준비하고 방문한 단기팀의 기대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비하고 계시던 일들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곳 사역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지난 4일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민 가정들을 방문하는 팀원들의 마음에 더 생생히 각인이 되었고 가난한 자, 과부 된 자, 병든 자를 돌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란인 크리스천 난민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프간 난민들을 돕고 전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긍휼의 주님의 섭리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샥에서 만나게 된 24세의 앳된 얼굴의 파티마 자매는 다섯 살 정도 된 딸을 데리고 아프간에서 걸어서 산을 넘고 때로는 허리까지 오는 물을 지나 터키 땅에 도착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 없이 70일간 어린 딸과 길거리 생활을 하였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우샥 교회 아프간 난민 사역자 부부를 만나 이란 교인 가정에 거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팀이 그들의 집에 들어섰을 때 동그란 눈에 구푸린 허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낯선 저희 팀을 견제하였지만 한마디씩 주님의 감동으로 자매를 위로하는 팀원들의 사랑은 파티마 자매의 얼굴에 미소가 보이게 하였고 눈물이 글썽이게 하였습니다.

이란 난민들이 아프간 난민들을 향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타민족을 향해 닫힌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자기들 보다 더 못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란에서의 넉넉하던 삶을 뒤로하고 터키에서 난민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하시고 낮추시는 주님의 손 아래 자신들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아프간 난민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생수와 같은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민족을 흩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흩으신 복음의 씨앗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또 다른 씨앗들과 만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와 예비하심이 아니라면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터키 땅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방향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종착점이 아니라 잠시 거쳐가는 나라로 들어온 땅에서 갇혀버린 수많은 난민들은 밖에 살고 있는 우리가 모르던 장년과 청년들의 영적 육적 필요와 문제로 지금 들끓고 있고 어른들 문제에 가리어져 관심을 받지 못하던 난민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학업 문제, 소속감의 부재로 병들어 가는 마음은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종양과 같이 터질 듯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 이번 여행을 통해 이곳 젊은이들의 영적 바탕과
> 이들의 혼돈과 막막함을 보게 하셨을 뿐 아니라
> 그들의 갈급한 현실과 하나님의 연단으로 이들이
> 도리어 놀라운 축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 보게 하신 것은 결코 이들이
>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
> 과연 밖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
>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터키 땅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아래 들끓고 있는 난민들의 광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지나가는 연단의 시간은 이제 마지막 추수 때를 함께 지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 터키와 이란, 아프간과 시리아 민족을 넘어서서 모든 종족이 복음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대로가 이곳 터키로부터 뻗어져 나갈 그날을 꿈꾸며 또다시 이 땅을 밟게 하시고, 영광중의 왕을 보게 하시고, 광활한 땅을 목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저는 이들을 돕고, 품고, 세워주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빚진 자의 마음으로 품고 갑니다.

우리 모두의 섬김 안에 일어난 성령의 불

글: 김 에릭 집사 (원패밀리교회)

지난 4월 21일 부활절에 출발해서 28일까지 일주일의 단기 터키 선교 여정을 마치고, LA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때의 느낌은 뭔가 부족함이나 아쉬움 없이 속이 꽉 찬 선교 일정 이었다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여정 가운데 만난 믿음의 좋은 인연들,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떠올리며, 선교를 떠날 때의 마음과 마치고 돌아올 때의 마음이 사뭇 다름을 느꼈습니다.
선교를 가는 우리가 나누고 주려고 간다는 마음으로 떠나면서 난민들의 상황을 막연하게 알고 갔었는데, 도리어 선교 과정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이 받았네라는 고백이 나오네요.

먼저 저 개인적으로는 나름 의미가 큰 해외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 중 처음으로 선교를 다녀왔고, 또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온 지 25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영토를 벗어나서 해외로 다녀온 첫 해외여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분 문제로 고립되었다가 시민권을 받고, 사실 가장 먼저 가고 싶었던 곳은 당연히 고국인 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는 큰 의미였던 첫 해외여행이 이번 터키 선교 였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며, 저 또한 첫 해외여행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더 기쁘고 들뜬 이번 선교였습니다.

선교 내내 가득했던 감동의 시작은 첫 스케줄이었던 뷰육아다 섬에서 체험한 성령의 불입니다.
뷰육아다 섬에서의 감동은 아직도 생생한데요. 비행기가 연착되어 이스탄불 숙소에 거의 새벽 2시쯤 도착한 저희는 바로 아침 5시 30분에 뷰육아다 섬으로 향했습니다. 모두 피곤한 상태였지만, 피곤한 내색 없이 뷰육아다 섬으로 가서 시작한 전도는 많이 뜨거웠습니다. 모두들 정말 몸 사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하얗게 불태우는 모습이 제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팀의 아웃리치를 맡으신 선교사님의 열정적인 통역에 힘입어 기도로 불을 지피신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사랑을 담아서 기도 받고 가는 사람들을 안아주시던 사모님, 저는 말도 못 붙이는 현지인에게 먼저 다가가 복음팔찌를 채워주고 기도를 해주시며, 일일이 미소와 기도로 현지인의 인사를 받아주시는 권사님들, 그리고 정말 솔로 콘서트를 방불케하며 뜨거운 호응을 받으신 찬양 집사님의 헌신 속에서… 성령님이 미신이 가득하고 아프고 상처 많은 영혼들이 허다한 뷰육아다 섬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손가락이 붙어버린 한 아주머니에게 복음팔찌를 끼워 주면서 저도 모르게 한 기도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 내가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영혼에게 필요한 기도를 나를 통해 하셨다고 깨달아지면서, 아마 그게 우리 모두의 섬김 안에 성령의 불이 붙어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나중에 묵상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님께 복음팔찌와 기도를 받고 너무 고맙다며 극구 돈을 내고 가신 분과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내려가는 중에 자녀가 미국 대학에 유학 합격 전화를 받았다고 다시 돌아와 눈물을 뿌리신 분 때문에 배 타러 가야 하는 시간까지 목사님께 기도 받으려고 줄이 쭉 늘어선 일들은 선교 일정 내내 우리에게 즐거움과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얗게 태운 뷰육아다 섬을 뒤로하고 다음날 기대하던 이란난민 교회리더 메지드와 멜로디를 만나기 위해 카라빅으로 떠났습니다. 마치 오래 알았던 것처럼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준 부부는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들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그 모습을 보니 물품을 준비하면서 쏟은 시간들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메지드와 멜로지 부부의 나눔을 통해 현지 난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엔에서 난민들을 향한 지원을 중단하면서 터키 당국에서는 정책을 바꾸어 어떻게든 난민들을 다시 내보내려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장 메지드와 멜로디도 5월에 인터뷰가 잡혀 있었고, 우리가 심방 가게 될 이란 난민 가정들도 인터뷰가 급박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맨 우측: 김에릭 집사

만약 난민 신분이 거부되어 이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한 긴장 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우리 모두 함께 심방을 갔습니다. 미국에서 거의 20년 넘게 신분의 문제를 겪었던 저로서는 그들의 문제가 남의 일 같지 않게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그들의 집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저희를 맞이하는 가족들은 너무나 따뜻했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 식사를 저희에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터키에서의 난민 생활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신분 문제로 대학에 아직 진학하지 못하는 큰형 푸리야, 터키어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 제 학년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라도 이란으로 가게 해달라는 동생 알리 그리고 그런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어떻게든 터키에서의 생활을 꿋꿋이 이어나가려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난민 가정도 어려움이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고 K-Pop과 한국에 관심이 많은 큰딸 아니타도 대학에 갈 나이지만, 신분상 집에서 혼자 그림 그리며 집안일을 도와야 했고, 내일 있을 학교 축구시합이 걱정되고 또 믿지 않는 코란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귀여운 남동생 아샴이 있는 가정이 바로 그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으로 본업인 화물 맥케닉으로서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 싸이드 씨는 시종 재치 있는 농담과 환한 미소로 우리를 너무 반겨주었고,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묵묵히 너무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대접한 어머니 미리암은 결국 고맙다는 우리의 인사에 그동안의 있었던 서러움을 털어내듯 모두 함께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듯 가족들이 모두 모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들에 숙연해졌고, 그때 선교를 위해 우리가 이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받고 간다고 느꼈습니다.

마지막 행선지였던 카스타모누에서 선교사님의 깜짝 제의로 한 가정을 심방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은 쿠르드족 난민 가정이었는데 하루 전에 심방 통보를 받아 시간이 짧아서 더 많은 음식 준비를 못 했다고 아쉬워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우리를 맞아주시고 음식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있는 10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너무 예쁜 머릿결을 가진 딸을 보니, 우리 딸 생각이 났습니다.
쿠르드족 이면서, 크리스천이면서, 터키의 난민으로 살아가는 삼중의 고난을 받는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쿠르드족을 향한 차별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또한 난민인 것도 힘든데 크리스천이라고 하여 종교 탄압을 받고 있기에 이 가정은 겹겹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있었습니다.

2019

킹덤 아웃리치 - 간증

카라빅, 카스타모누 팀

아버지이자 가장인 베이안(BEYAN) 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나눠 주었습니다. 터키 땅에 계속 살게 하실지 아니면 어딘가로 옮기게 하실지 알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불안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절한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기도 제목을 나눠주었습니다. 베이안 가족뿐 아니라 이란 가정들이 공통적으로 고통이고 아픔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저에게도 해당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소유, 신분 등 등 … 어쩌면 저는 그분들보다 좀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저 또한 금방 태어날 둘째 아이와 더불어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 가정을 꾸려 나가고 미래를 준비할까 염려하는 저의 모습이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는 터키에 있는 난민분들이나 미국에 있는 제가 같을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을 가지고 말씀안에 있는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되는 정말 나약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안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선다면, 인종과 우리가 살고 있는 영토를 초월하여 믿음 위에 선 한 형제, 자매가 됨을 느꼈습니다. 이번 터키 선교 사역을 통해 이러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어 귀한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모든 선교 일정을 안전하게 마무리하고, 사랑의 마음들과 후원 그리고 우리가 가 있는 동안 기도로서 동참하여 주신 우리 교회 식구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던 손길이 저희 여섯 명과 함께 터키에 다녀왔다고 믿습니다. 또 만삭에도 저에게 다녀오라고 용기를 준 아내와, 가족 돌보시느라 고생하신 어머니, 장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버가모에서

글: 이영미 집사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

뜨거운 햇살에 올리브가 익어갑니다.
서늘한 바람에 답답함이 시원해집니다.

그랬군요 주님...
제게 주신 것이 너무도 많아서 헤아릴 수 없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들이 당연해져
받은 복들을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차라리 스멀스멀 들어오는 세상의 편안함에
하나둘씩 익숙해져 이제는 나의 심령까지
그것들과 타협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나를 참아주시고 다독이셔서 버가모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 땅을 밟게 하시며 뜨거운 감사를 회복케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이 땅에 무너져버린 수많은 돌들 위에 나를 다듬으셔서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로 나를 세우시길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가 편안하니
주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
기뻐뛰며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버가모 교회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제이넬

글:임동혁 간사 (한국 SWM 선교회)

맨 앞 왼쪽: 임동혁 간사

실크웨이브 한국 1팀은 '허강한 사역자'님과 함께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가지안텝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지 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는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난민과 터키인 가정들을 심방하고, 기도와 예배, 위로와 구제 사역을 마치고 이스탄불의 아가페교회 어린이/학생부 사역까지 이어졌습니다. 짧은 글로 다 보고드릴 수 없지만 심방한 가정 중의 일부를 함께 나눕니다. 큰 은혜와 평강, 기쁨과 감사를 팀과 현지가정들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터키인 제이넬 가정심방

제이넬은 신실한 가지안텝교회의 성도인데 그는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을 때 1년여간 성경을 홀로 읽었고 꿈에서 예수님이 직접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는 다음의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어느 누군가와 함께 푸른 풀밭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고, 그 틈사이로 한 아이가 비스듬히 누워있었죠. 가까이 가서 그 아이를 보려고 하는데, 내 옆의 그가 말하길, 그 아이는 죄인이며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꿈이지만 너무나 슬퍼서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만일 네가 원한다면 이 아이를 일으킬 수 있다'. 나는 당연히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일어나라!'라는 외침과 함께 죽었던 아이가 되살아나는걸 눈앞에서 목격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려고 애썼으나 도저히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꿈이 너무 놀랍고 생생해서 잠에서 깨자마자 가지안텝 교회 목사였던 패트릭을 찾아가 자초지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패트릭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꿈얘기를 듣고 꿈의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이 '부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에, 죽은자를 일으킨 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제이넬은, 이후 2년여간의 양육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이넬의 꿈에 방문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이넬은 더욱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 증거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제이넬의 기도제목을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글: 조윤미 집사(베델교회)

아래 맨 우측: 조윤미 집사

이른 아침 뷰육아다 섬으로 떠나는 배 안엔 열방에서 모여든 복음을 위한 일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즐겁고 힘찬 찬양이 울려 퍼지며 보스보르 해협을 따라 복음의 물결은 섬 구석 구석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무엇을 찾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갈급함과 공허함은 기도 받고자 스스로 줄을 서고 복음에 귀를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 땅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2년 전 보다 모든 것이 배가 된 부흥 그 자체였기에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는 말씀이 절실히 다가왔습니다.

뷰육아다 섬 사역을 시작으로 앙카라, 찬크르, 카스타모누까지 이어지는 긴 아웃리치 여정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실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각 도시에 있는 높은 옛 성으로 올라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과 기도로 첫발을 내딛였을때 각 도시를 향한 기도의 마음은 4년 전 남동부 디아르바크르로 아웃리치를 갔을 때와 사뭇 다른 기쁨과 감사로 멀리 내려다보이는 도시 가운데 환하게 펼쳐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앙카라 조요한 사역자님의 인도로 앙카라 난민의 집과 쿠르트루쉬 터키 교회(터키 교회 개척 리더들을 세우고 있는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간증과 비전을 듣고 그 땅 가운데 터키인들을 향한 복음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습니다.

앙카라에서 북쪽으로 두 시간 떨어진 찬크르에선 뜻하지 않은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의 초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가정의 예쁜 다섯 공주들과 함께 우리에게 할렐루야 찬양을 불러 주었던 그들의 잊을 수 없는 섬김과 사랑을 받게 되었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에 참 많은 감사가 나왔습니다. 복음에 부정적인 민족주의자들로 가득한 찬크르 땅에 하나님께선 이미 이라크 그리스도인 난민 가정들을 보내 주셨고 그 땅 가운데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리라는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4월 말임에도 흰 눈이 쌓여 있는 높은 산을 넘고 넘어 북쪽 카스타모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다음날부터 우리는 옛 성으로 올라가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만남인 듯 터키 대학생 연극 동아리 그룹과 고등학생 그룹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기쁨으로 카스타모누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는 카스타모누 국제 교회를 섬기시는 이라크, 이란 난민 가정의 초대가 있었고 협소한 바닥에 펼쳐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식탁 앞에서 그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지 한없이 고개가 숙여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날 주일 예배엔 한국어, 터키어 그리고 포르투키어의 3개 국어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루투키어는 아프리카 기니비 사우에서 이곳 카스타모누 대학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열방이 모인 국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유럽 쪽 이스탄불인 탁심 광장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나 보스보르 해협의 배로 올라탔고 이제 소피아 성당 넘어 붉게 저물어 가는 저녁노을 뒤로 신부를 부르시는 다시 오실 신랑이신 예수님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짧은 열흘이 긴~ 여정으로 느껴졌던 이번 아웃리치는 삶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 앞에 온전히 부어진 주의 종들과 동행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고 이번 아웃리치에
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지금은 추수할 때

글: 윤형조 협동 전도사(뉴비젼 교회)

할렐루야!
캘리포니아 밀피타스에 위치한 뉴비젼 교회는 SWM 선교회를 통한 터키 사역에 7-8년째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OM 소속의 김선희 선교사님과 그의 동역자 오스만 형제와 저희 교회 4명이 뷰육아다를 비롯하여 터키 중부의 카이세리와 요즈가트, 닷소/메르신 지역을 방문하며 팀 사역을 하였습니다.

뷰육아다 사역

작년과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많은 인파들이 섬 꼭대기의 그리이스 정교 교회당에서 축복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걸어 올라가며 긴 실들을 풀며 복을 비는 그들에게 열심히 전도 팔찌와 복음 설명서, 기도와 축복의 말을 전하고, 신약 성경을 나눠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성경을 가져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에는 저희 팀만 수백권을 나눠 줄 수 있었습니다. 저들이 기독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 것 같아 기뻤고 성경을 가져간 사람중 10%, 아니 1%만이라도 성경을 읽고 복음에 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하였습니다. (창 18:32b ....내가 의인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돌아오는 배 안에서 어렸을 때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경험이 있는 김헬렌 집사님이 옆에 앉은 자매 분과 스페인어로 대화를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분은 콜롬비아에서 온 40대 미혼 자매로 다른 2명의 20대 콜롬비아 자매를 훈련하며 이스탄불에서 선교사로 사역한다고 하였습니다. 터키 땅을 사랑하시어 땅끝에서 일꾼을 보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카이세리

오전에 비행기로 카이세리로 이동하여 점심을 먹은 후, 고적지를 방문하여 꾸란을 공부하는 여학생들과 깜짝 사진을 찍고 시장에서 난민 아동들에게 줄 학용품을 샀읍니다. 4시에 무아메르 목사님의 터키 교회를 빌려 예배 드리는 이라크 난민 교회를 방문하여 그 분들의 얘기를 듣고 기도하며 격려하였습니다. 대부분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IS때문에 고향을 떠나 미래의 약속이 없이 서방나라로 가기를 기다리는 그 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게 없었지만 난민 되신 예수님, 요셉, 또 우리 나라의 일제 강점기 얘기를 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물로 감사해 하였습니다. 그 분들에게 가져간 물품을 나눠 주며 작으나마 사랑을 전달하였습니다. 헬렌 집사님과 최금자 권사님은 아이들과 만들기를 하며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있은 터키인들의 수요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무아메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한 후 3명의 청년이 예수를 믿겠다고 헌신하는 귀한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며 축복하였습니다. 또한 캐나다에서 가족과 함께 와서 여행사를 하며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앤드류라는 형제도 만났습니다. 비록 형편은 열악하지만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가 늘어나고 먼 곳에서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교회가 카이세리에 구원의 복음을 흘려 보내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오스만 형제의 집을 방문하여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어머니와 이모를 위해 기도를 시

결신한 3명의 청년을 위한 기도

이라크 난민 아이들과의 시간

이라크 난민들과 기도한 후

작하자마자 어머니가 발작을 하여 중단하였습니다. 원래 발작 증세가 있었다는데 변질된 이슬람 전통과 병 가운데 소망없이 살아가는 그들이 아들을 통해서라도 복음을 듣고 빛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길 소원하였습니다.

카이세리/요즈가트

오전에는 재래 시장과 그리이스 정교도들이 살았던 마을과 유적지를 방문하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어제 만났던 교회의 청년들과 점심을 하며 신앙 간증과 격려,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저들은 외부 문물에 많이 열려 있고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하든 복음에 붙들려 주의 귀한 일꾼들이 되길 소원하였습니다.
차로 요즈가트로 이동하여 그곳의 교회 개척자 부부 하산/휴리 가정에서 저녁을 먹고 하산이 양치는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양들이 큰 우리 안에 들어간 것을 보았는데 비록 냄새는 심하지만 그들이 하산의 보호를 받으며 편안히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쫓겨나 불모지에서 7마리의 양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100여 마리로 늘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현재 앙카라에 있는 교회의 지교회로 합법적인 교회로 등록하길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즈가트

이전한지 얼마 안 된 휴리의 교회 (실은 임대한 사무실 방 하나)에 가서 창립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말이 교회이지 아무 장식도 없는 썰렁한 형편이라 김선희 선교사님이 순발력을 발휘하여 시장에 가서 커튼, 블라인드, 종이들을 사서 벽을 장식하고 성경 귀절을 붙이고, 물건들을 넣어둘 캐비넷도 조립하고, 다 같이 바닥 청소를 한 후 미국에서 가져간 십자가를 벽에 거니 제법 교회 같아 보였습니다. 4시 30분 정도에 20여명의 교인, 친지들을 모시고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빵 하나를 각자 뜯어서 먹고 포도즙도 큰 컵 하나에 딸아 돌아가며 마셨습니다. 이어서 말씀, 찬양, 간증, 권면 이런 순서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몇년 전에는 앙카라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이 매주 편도 3시간 넘는 길을 와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지금은 그 분이 너무 힘들어 못 오신다고 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진 놀라운 이적이 귀하고 또 하산과 휴리를 훈련해 줄 일꾼이 필요한 절실한 사정입니다.
"주여,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당신이니 이 교회에 일꾼을 키우시고 교회가 건강히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소서."

다소

오전에 차로 닷소를 향해 떠났습니다. 5시간 여의 노중에 바울이 복음을 위해 지났다는 타우루스 산맥을 통과하였습니다. 고도가 높아서인지 아직도 눈이 있는 이 곳을 2,000년전 통과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의 열정이 느껴졌고 그의 수고로 이방인인 우리가

소르군팀

하산/휴리의 가족과 함께 (맨우측: 윤형조 전도사)

감격스런 성찬 예배

다소에서 가정 세미나

복을 받고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다소의 교회 개척자인 아이한과 귤한의 집에 도착하니 농촌 마을의 가정 교회였습니다. 모인 교인들과 교제를 나눈 뒤 준비해간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 자매님들이었지만 열심히 듣고 질문서도 작성하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게 만드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욱 서로 사랑해 나갈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후, 2 자매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한 자매는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 모임에 나올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자매는 간증을 통해 11살 때 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어머니와 언니가 반대하며 핍박하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남편에게 맞아가며 교회에 출석하던 아주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저들이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저들을 통해 가족과 친척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현재 아이한과 귤한이 설교 등의 훈련을 받기에는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았고 한 달에 두번 1시간 떨어진 메르신에 있는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이 훈련 받고 주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소서!"

메르신/다소

오전에 메르신에 있는 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들이기 위해 떠났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예쁘게들 차려 입은 걸 보니 큰 행사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여 베닷 목사님의 안내를 받았는데 그는 한국인 선교사님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신학도 공부하고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중에는 안마사로 일하고 주일에 예배를 인도한다고 합니다.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올해 한국으로 가서 애니미즘 공부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찌기 이곳까지 와서 수고한 선교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렸습니다.

이 날은 주변의 여러 교회에서 와서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르웨이 여성이 키보드, 목사님이 봉고, 그의 딸이 바이올린, 아이한이 터키 전통 현악기, 기타까지 어울어져 멋진 찬양을 드리고 아이들 노래와 청소년들의 촌극이 있었습니다. 우리팀은 헬렌 집사님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Isa Mesih) 찬양을 수화 율동과 같이 하여 불렀습니다. 우리 찬양이 끝날 때 3명의 어른이 일어나 박수를 치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아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농아로 잘 듣지 못하는데 우리들의 동작을 이해하였다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연습하며 다른 곳에서도 불렀지만 저들에게 저들의 언어로 찬양이 전달되었다는 데에 진정으로 우리의 작은 정성도 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온 선교사 부부와 그들과 같이 온 한국인 선교사 자매 셋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터키어로 번역하여 불렀습니다. 중국인 선교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만나 보기는 처음이고 중국에서 7년간 선교사로 있었던 추억이 떠올라 감격에 눈물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계시록 7장 9-10절의 말씀이 실현됨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였는데 미국 네슈빌, 텍사스, 호주, 캐나다 등에서 온 사람도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꾼을 예비하셨음에 감사드렸습니다.

메르신 교회 예배를 마치고

오스만과 중국 선교사 부부를 위한 기도

다시 다소로 돌아와 바울의 교회와 우물 (사실 확인이 안 되었다고 함)을 방문하고 아이한 집에서 BBQ 파티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식사 후 오스만 형제가 "터키의 청년들을 향한 미디어를 이용한 전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타종교로의 개종이 무척 힘든 터키에서 소셜 미디어가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란 난민으로 앙카라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는 하메드, 오스만, 메르신 교회에서 만난 중국인 부부, 한국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시차와 장소 이동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피로가 밀려 왔습니다. 아다나 공항에서 이스탄불로 돌아 와 배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아시아 쪽 이스탄불로 가서 김 선교사님이 강추한 우즈베키스탄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직원 중의 한 분은 한국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말로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까르프(프랑스 기업으로 코스코 비슷)에 가서 선물로 가져갈 과일 제품을 사고 호텔로 드니 거의 10시가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 여러 민족이 어우러져 사는 이스탄불, 터키 땅 가운데 당신의 섭리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음날 발표할 자료를 정리하다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며

1주일 여 동안 각지로 흩어졌던 팀들의 사역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이 터키 땅을 사랑하시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특히 쿠르디스탄에서 의료 사역을 하고 돌아 온 팀의 보고를 듣고 몇년 전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예지디 민족을 IS의 만행 가운데서도 사랑하시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꽁꽁 닫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심을 들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강하게 느꼈습니다. 또 LA에서 오신 자매님이 싱글맘으로서 자폐증이 있는 아들과 함께 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번 선교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셨는지 간증을 듣고 그의 귀한 헌신에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통해 이미 씨를 뿌리고 수확의 문을 열어 주신 이 때에 각 교인/교회가 합당한 반응을 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느꼈습니다.

"주여! 속히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앞줄 세번째 : 유윤주 집사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아닐까요?

글: 유윤주 집사 (베델교회)

20대 초반 2명의 메디칼 학생 부터 70대 후반으로 이루어진 메디칼 단기 선교팀은 치과, 내과, 소아과, 한방과 그리고 간호사와 아동, 부녀자 사역으로 나뉘어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에 다녀 왔습니다.

3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챠미스쿠 라는 난민촌에는 대부분의 예지디인들과 이슬람들이 공유하는 지역으로 이런 난민촌이 23개 구역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번 저희 팀들이 찾은 차미스쿠라는 지역의 본래 뜻은 쥐들의 골짜기 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1명의 의사가 계시지만 3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기에는 의약품이나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태 입니다.
막사로 지어진 텐트 안에서 하루 평균 150명을 5일 동안 진료 했으며 낮의 뜨거운 온도는 사람들의 체취와 함께 섞여 숨을 쉬는 것이 버거웠지만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 하고자 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사랑의 손길에 가슴이 뭉클 했습니다.

좁은 텐트 안에서는 우는 아이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른들, 이를 치료 하며 누운 환자들, 혈압과 당뇨 수치가 높은 환자들, 허리가 불편해 침을 온몸에 찌르고 얌전히 누워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진료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이 엿보였습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텐트 안은 발디딜 틈이 없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한사람이라도 더 치료 하려는 바쁜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에는 충분 했습니다.

환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손을 부여 잡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도 하시는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것 같았습니다.

아동 사역을 하는 분들은 하루에 50명씩의 매일 다른 아이들을 복음과 찬양과 율동 그리고 게임으로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랑과 열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귀한 열정이 몸살로 이어져 약의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 이였지만 팀원들을 태운 차가 아침에 도착 하기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차를 보면 달려와서 큰 환호성과 웃음으로 손을 높이 흔들어 맞이 하여 주어서 여느 팬클럽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반가운 환호성은 저희 팀원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고 아침마다 텐트로 향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성 사역은 하나님이 발걸음을 이끄시는데로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간단한 만들기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문을 열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우상신들을 믿고 공작 새를 숭상하며 예수님은 선지자 중의 한사람으로 알고 있는 예지디인들에게 복음 팔찌를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 하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 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손을 잡고 영접 기도를 같이 드렸습니다.

챠미스쿠 난민 캠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자호 라는 지역에 개신 교회가 있었고 마침 통역을 담당 하던 자매가 그곳 교인이였기에 쉽게 연결 하여 바로 다음날 3가정이 교회에 출석해서 저희 팀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니겠다고 약속한 또다른 3가정과 주위의 눈치 때문에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열린분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텐트를 방문한 가정의 70%가 교회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과 학살, 성의 노예로 인한 모진 세월을 겪으며 두려움, 슬픔, 공포 등의 트라우마로 인한 답답한 가슴과 반복되는 기적 등 그곳 예지디 난민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 새 소망이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떠올리며 말씀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체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는 추수할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민 생활 5년 동안의 예지디인들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결실을 맺는 듯 하여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을 기도와 함께 슬기롭게 준비해야 할때 인 것 같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글: 김제임스 장로 (주님의 영광교회)

12명이 한 팀을 이루어 이번 킹덤 아웃리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1. 출발 전

중보기도자들과 팀원들이 이번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하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차량이 트레일러와 측면 충돌하는 사고와 팜츄리 가지가 차량으로 떨어져 앞 유리창이 깨지는 사건, 팔이 부러져 깁스를 하는 등 팀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간 단기선교였습니다.

2. 뷰육아다섬 전도사역

여러 지방에서 찾아온 순례자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실타래를 풀어 올라가거나 침묵 기도로 정상 위에 있는 교회를 찾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보이지 않는 신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고 싶어 하는 연약한 모습과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팀원들은 전도지와 복음 팔찌를 나누어주며 기도해주며 인간의 모든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1) 사역 내용

1) 2-3명이 모여 순례자들에게 복음 팔찌와 전도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이 전도지는 현지어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로 써 놓은 것이었습니다.
2) 본부에서 소개해준 현지어/영어 통역자를 배정받아 순례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3) 부족한 언어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짓으로 기도해 주겠다고 초청하여 일대일로 기도해 주며 그들을 축복하였는데 한국어로 기도해 주었는데도 기도 받는 진지한 모습을 통해 신의 도움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2) 사역하며 느낀점

뷰육아다 섬을 찾아온 이들은 주로 치유와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했고 대부분 기도를 받고 싶어했습니다. 이때 현지어 통역사 1명으로는 팀원들의 소통이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본부에서 터키어 통역 사역자들을 섭외하여 팀당 2-3명 정도를 배정해 주면 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평강의 왕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진리를 확인한 현장이었습니다

3. 안디옥 베드로동굴 성찬 예배

(1) 사역 내용

비전트립팀과 안디옥 팀 12명이 함께 성찬예배를 드렸습니다.

(2) 사역하며 느낀점

본부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성찬식을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 당시의 많은 위협과 고난 가운데 성찬에 참여한 그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었겠고 본 교회에 돌아와서도 성찬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새로워질 수 있었겠습니다.

뷰육아다섬 전도사역

어린이 사역

4. 안디옥 어린이 학교 사역 VBS (5세-12세)와 야외운동회

(1) 사역 내용

1) VBS 사역의 풍선 만들어주기, 얼굴 그림 그리기, 즉석 사진 찍기, 손톱 네일, 찬양, 율동 사역, 공예 사역
2) 팀원 중 한의사가 교사와 식구들의 통증 환자 한방 치료사역
3) 실내 축구장에서 약 30명의 어린이와 교사, 12명의 팀원들이 운동회 실시 (이인삼각걷기, 피구, 축구, 줄넘기 들어가기, 손수건 돌리기)
4) 운동회 후 각 학생마다 모자와 선물을 나누어 주며 격려와 사랑을 해 줌

(2) 사역하며 느낀점

1) 실내에서 학업 위주로 공부하는 어린이들이 실외에서 운동회와 활동을 한 후에는 집중력과 성적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2) 이레 학교 어린이들에게 '학교와 그리고 싶은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였는데 난민 자녀와 현지인 자녀들이 의외로 십자가와 교회, 하트와 구름 등 평화로운 동심을 표현하는 것을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3) 운동회를 통해 서로 친분이 만들어지고 어색함과 경계심이 벗겨지며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붙여준 이름표를 통해 이름을 기억하고 호명하게 되었습니다.
4) 안디옥을 떠나는 날 아침 이레 학교 어린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박수로 환송을 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고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을 불러주는데 그 아이들의 눈망울이 붉어지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5. 안디옥 개신교회 교인 가정 심방

(1) 사역 내용

1) 6명씩 2개 팀으로 나누어 터키 공동체 교인과 시리아 공동체 교인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2) 메리 자매 가정을 심방했습니다. 그 가정은 터키 가정으로 홀로 6월에 출가할 딸과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었고 안바울 목사님 가정의 이모 같은 존재였습니다.
3) 시리아 공동체 리더인 아지스 가정을 방문하여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2) 사역하며 느낀점

1) 터키 공동체의 메리 집사는 고난이 많은 성도이지만 매일 교회에서 새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출가하는 세레나 딸에게 어머니에게 제일 감사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답을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온전히 지켰고 또한 신앙인으로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킨 신앙인으로 인정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날 살아있는 초대 교회 성도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시리아 공동체 리더인 아지스형제 부부는 중산층 지식인으로 내전으로 터키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M민족 사람으로 교회를 찾아가면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통해 도움과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듣고 회심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는 난민 지위로 타국에 정착할 수 있지만 자신의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꼭 복음을 전하고 싶어 고국에 돌아가겠다는 간증을 듣고 목숨보다 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6. 난민캠프촌 방문

(1) 사역 내용

시리아 국경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약 100명 정도의 텐트촌은 어린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준비한 식량과 선물을 개인용 백에 담아 전달하고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함께 찬양하고 율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텐트 가정에 들어가 촌장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과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교회에서 찾아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2) 사역하며 느낀점

1) 우리는 멀리서 알아보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달려오는 어린이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질서를 지키도록 돕기 위해 엄격히 통제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준비한 찬양과 율동을 잘 마치고 선물을 나누어주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만약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통제해주지 않았으면 선물이 부족하거나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2) 팀원 중에 한 분이 이곳 난민촌의 어린이들의 눈빛이 안디옥의 어린이들의 눈빛과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이곳의 어린이들이 전쟁을 경험했기에 공포와 생존을 위한 투쟁의 빛이 서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아이들이 겪은 깊은 트라우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복음 밖에는 대안이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왔습니다.

3) 6.25전쟁 후에 어린 시절 미군 차량만 보면 따라다니며 '양키 기브 미 쵸코릿'하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장성하면서 미군들이 우리를 도와주었다는 기억이 나듯이 이 난민촌 어린아이들도 어린 시절 동양인이 난민촌을 방문해 노래하고 식량과 선물을 나누어 주었는데 교회에서 왔다는 좋은기억이 생각나 교회를 찾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믿음으로 떠나왔습니다.

7. 터키 공동체와 시리아 공동체 예배 참석

(1) 사역 내용

1) 주일에 터키 공동체 예배에 참석하여 팀의 최형규 목사님이 천국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2) 그 후에 시리아 공동체 예배에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성찬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지스 부부만 개종하여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사역하며 느낀점

1) 예배 참석자들은 관계를 통해 친숙해지거나 관심이 있는 자들이 방문하는데 그중에서 복음에 관심 있는 자들에게 더 다가가 단계적으로 관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2) 경찰 5명이 주일날 예배 전후에 교회 입구 경계를 해 주었습니다. 교인들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의 신분과 목적을 모르기에 환영하기보다는 경계심을 갖고 계속 참석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신분증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3) 이슬람 전도전략과 터키 교회 개척의 원리에 대해 안바울 선교사님의 2번 강의를 요청해서 듣고 팀원들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현지 실정을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터키 아웃리치를 돌아보며

1. 킹덤 아웃리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번 선교는 한 교회나 교단에서 할 수 없는 사역임을 알게 되었고 SWM 선교회가 터키와 인접국들의 영혼 추수때에 쓰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구축하고 예비하라'는 예언의 말씀이 터키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어느 단기선교보다 더 많은 감동과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3. 지금은 난민과 이주민, 현지인들을 회심시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 시기인데 잠시 그 문이 열려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 우리 팀원들은 현지인 일꾼들을 보며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우리 팀원은 현지인 사역자가 처한 환경과 부부간의 고통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짐을 져야함을 느꼈습니다. 선교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언제인가는 그곳을 떠날 수 있기에 선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은 현지인 사역자들(터키인, 시리아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현지인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 주신 감동을 따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안디옥의 안바울 사역자님은 이슬람권 선교전략과 분석과 현장 경험을 통한 선교체험을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놓은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에 맞는 사역을 연결한다면 많은 유익을 나누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6. 이번 아웃리치에 함께한 믿음이라는 아이는 자폐아로 나이는 8살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날 모임(일일연중회)에서 간증을 하였고 어느 장로님이 찾아와 격려금을 주시면서 믿음이를 선교사로 잘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선교 후에 믿음이가 말도 또렷해지고 말귀도 잘 알아듣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이의 어머니는 선교지 다녀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믿음이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있다고 간증해주셨습니다.
7. 마지막 날의 연중회에서 13개 팀의 선교보고를 들었습니다.

'추수 때에 필요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추수는 했는데 그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제자 삼고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와 그들과의 만남은 제한적이고 지속적인 연결을 보장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을 제자로 양육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새벽에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했던 고별 설교중 (행 20: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터키 땅에 많은 다민족 이주민들이 잠시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소유한다면 그 말씀이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슬람권은 성경을 휴대하고 다니기가 쉽지 않고 성경공부도 어려운 실정일 것입니다.
SWM 선교회에서 아웃리치를 통해 각 현지 교회들에게 성경 대신 주요 성경 구절 요약 간행물을 보급한다면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을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세울 수 있고 그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를 가더라도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김제임스 장로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

글: 홍 다니엘 집사 (버지니아 열린문장로교회)

평균 나이 60세, 5명으로 구성된 이집트 팀은 이스탐불에서 이번 사역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500파운드의 짐을 운반하기는 육체적으로 쉽지는 않았지만, 더 걱정한 것은 그 짐들이 이집트 공항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기도 동역자들과 우리 팀들은 오랜 시간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탕 한 알도 잃지 않고 이집트 교회에 전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현지 선교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가방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빼앗길 수 있는 물건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불법 거래를 많이 해서 단속이 심하고 특히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물건들은 당연히 압수된다고 하셨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참 유머스러우시고 재미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봅니다, 이번 경우에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팀이 세관을 통과하기 직전에 중국 여행객들이 허락 없이 세관에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는 여권도 보여주지 않고 무사히 그것도 아주 여유 있게 세관을 통과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한 이유는, 바로 사탕 한 알을 위한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를 나누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에 있었던 모든 사역에는 어떠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임재하심으로 기적이 계속 있었고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 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난민 가정에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의 빛이 임하심을 느꼈을 때에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그분들을 섬겨 주시는 현지 선교사님들과 현지 목회자분들… 정말로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영혼들 특히 난민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길 바라고 다시 오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애써 힘쓰는 선교가 지속되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